

“경제안정·균형발전·사회통합 ... 국민행복시대 열어주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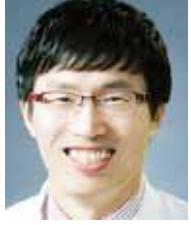
광주·전남 각계 20인 “새 대통령에 바란다”

“지방대가 지역발전 동력 창출할 수 있게”



▲박대환
(57·조선대 대외협력처장)
지방대학의 위기는 곧 지역의 위기이다. 더 나아가 지방대학 문제는 국가의 문제다. 지방대학 육성에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가 됐다. 새 정부는 지방대학 육성의 구체적인 실천 의지를 ‘지방대학 육성 특별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구체적이고 혁신적인 지방대 육성계획을 수립, 지방대학이 지역발전의 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큰 정치 해주길”



▲김재봉
(48·밝은광주안과 대표원장)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기존 정권과 동떨어진 민심으로 인해 지지율이 가장 낮게 나온 광주·전남 지역은 불안과 좌절감이 크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큰 정치를 해주길 바란다. 또 무조건적으로 퍼주는 식의 의료 복지 및 사회 복지 확대는 결국 국가 재정을 어렵게 함은 물론 국민 개개인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해주길 바란다.

“경제민주화 행동으로 보여달라”



▲김종애
(41·중소상인실무기 광주네트워크)
말로만 하는 경제민주화가 아닌, 직접 느낄 수 있는 경제민주화를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란다.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유류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이 첫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 민생 대통령을 표방했다. 중소기업과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한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해 골목상권과 대형 유통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길 바란다.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차질 없게”



▲박흥석
(67·광주상공회의소 회장)
과거 정부의 차별적인 지역발전 정책을 개선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이라는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국정 운영을 펼쳐주길 바란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에 대선공약으로 내건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건설 등의 차질 없는 이행과 더불어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인 광주은행의 지역 환원, 동북아상품거래소 광주 설립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린다.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 광주개최 지원”



▲송승중
(54·광주시 보도총괄담당)
대통령의 대한민국 건설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타 지역에 비해 낙후된 광주·전남지역에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린다. 특히 광주지역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건설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 등도 꼭 지켜주셨으면 한다. 또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광주에서 열릴 수 있도록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다문화가정 세금 줄이고 지원 늘려야”



▲디바인 라뜨라 탈리봉
(45·다문화가정 주부)
필리핀에서는 이미 여성대통령이 나왔었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한민국의 첫 여성 대통령으로 약속을 잘 지키는 지도자가 됐으면 한다. 특히 우리와 같은 다문화가정은 어렵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수입이 적고 일자리도 구하기 힘들다. 다문화가정과 어렵게 사는 이웃들을 위해 세금을 줄여주고 지원을 늘려줬으면 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대부분의 바램이다.

“국민통합으로 선거 후유증 조속히 극복”



▲김광육
(39·광주발전연 부연구위원)
우리가 바라는 ‘새 시대’를 열어주시길 바란다. 유례 없는 양강 구도로 치러진 이번 대선의 후유증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진정성있는 국민통합으로 선거 후유증을 조속히 극복해주고, 국민의 우려를 씻어 내길 바란다.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풍요하게 함은 물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더불어 발전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실현해 주시길 바란다.

“서민들의 권리 신장에 힘써줬으면”



▲김현
(41·변호사)
이명박 정부에서 가장 후퇴한 정책 분야는 인권이었다. 대통령 당선자는 낮은 곳을 바라보고 서민들과 함께 하며 각 분야에서 그들의 권리 신장에 힘써줬으면 하는 바램이다. 또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지배해왔던 지역·이념·세대 갈등을 조율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 더 이상 국론 분열이 없었으면 한다. 국민이 우려될 수 있는 진정한 대통령을 기대한다.

“문화적 삶을 살 수 있도록 토대 마련”



▲정양주
(52·광주전남작가회의사무국장)
문화의 질을 높이는, 문화적 삶을 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길 바란다. 결코 드러난 행사, 외견상 화려하게 보이는 행사에는 많은 지원이 이뤄지는 반면 문화의 기본적 텍스트가 되는 문화의 경우 상대적으로 관심이나 지원이 소홀한 것 같다. 가시적인 문화 형태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이제는 본질적 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정책을 추진했으면 한다.

“4대강 사업 다시 바로잡아달라”



▲문관태
(42·전남환경운동연합)
이번 선거에서도 지역감정이 여실히 드러났다. 새정부가 이런 지역감정의 벽을 허물고 동서간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또한 그동안 국민의 의견과는 상관없는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4대강 사업 등은 새정부에서 다시 바로 잡아줬으면 한다. 그리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영광원전 문제 등 노후원전에 대한 조치도 서둘러줬으면 한다.

“등록금 완화 등 교육재정구조 개혁”



▲이거성
(22·전북대 물리학과)
혁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대학생을 포함한 전국민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가 주길 바란다. 특히 등록금 완화 정책을 필수로 한 대학의 교육혁신과 재정구조 개혁 등으로 교육의 질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을 반드시 실행시켜 주길 희망한다. 당선인이 이공계 출신인 만큼 이공계, 인문계를 아우르는 교육 정책을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사람을 지역 문화재로 발전할 수 있게”



▲일담
(백련사 총무스님)
전통 문화 보전과 계승에 힘써달라. MB정부에서는 지역 문화 예산이 축소되면서 제대로 관심을 받지 못했던 면이 적지 않았다. 사람의 경우 무분별한 개발이 아닌, 원형을 유지하면서 지역 고유 문화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하는 등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 지난 정부에서는 한평생 지역 교육 무형 문화재를 고수하며 유지하기 위해 힘써온 장인들에 대한 지원도 아쉬웠다.

“호남 산업기반 개선 서해안시대 열어야”



▲조성은
(52·무진기연 대표)
과학기술부 복원과 중소기업부 신설로 원천기술과 중소기업이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이뤄야 한다. 중소기업부를 주축으로 대기업·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정책적인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균형발전을 위해 호남의 취약한 산업기반을 개선, 서해안 시대를 열어야 한다.

“검경 수사권한 분산해 견제할 수 있게”



▲박정남
(58·광주동부경찰서 지능팀장)
2012년 시행된 대통령령은 검사의 수사지휘를 제한하려는 취지와 반대로 검찰권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었다. 검사 독점적 수사 구조는 아직 바뀐 것이 없다. 수사와 기소의 결합은 위험한 만남이다. 대한민국의 수사구조가 제자리를 찾았으면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사에게 맡겨 권한을 분산, 상호협력·견제하는 균형으로 형사소송법은 반드시 재개편되어야 한다.

“지역·세대 대통합 이루는 모성정치를”



▲방철호
(76·광주시민단체연합회대표회장)
대한민국 최초 여성대통령으로 당선되실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우리의 정치문화를 볼 때 한 국민으로서 지역적 특색을 지닌 점에 대해 아쉬움이 남을 때가 많다. 그러나 여성대통령으로서 모든 것을 풀어 안고 감싸주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지역·세대간 대통합을 이루는 모성정치를 펼쳐 주셨으면 한다. 지역 간 대립을 해소하는 정책에도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소의계층 국민들에 관심과 지원”



▲박유연
(54·품앗이노인센터사회복지사)
대통령 당선자는 공약으로 내세웠던 복지 관련 정책들을 꾸준히 실행해 대한민국을 진정한 복지국가로 만들어주길 바란다. 특히 장애인, 노인과 같은 사회 소외계층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에 대한 정성어린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기다. 최초의 여성 대통령인 만큼 어머니의 마음으로 서민들을 다독여주시는 따뜻한 복지정책을 펴나가길 바란다.

“지역의무 공동도급 등 제도 개선 시급”



▲김명구
(58·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장)
지역 건설업계는 건설공사의 물량 감소와 수익성 악화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상당수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존폐의 기로에 있다. 내년 전망 또한 불투명하다. 새정부는 공사물량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와 대형공사의 분할 발주, 지역의무 공동도급, 적정 공사비가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해주길 바란다.

“혼란스런 대학입시 전형 간소화해야”



▲김상모
(49·여수 부영여고 교사)
교육제도에 급격한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의 지속성·안정성을 무너뜨리는 성급한 정책추진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우선 대학입시에서 너무 많은 전형 수를 간소화해야 한다. 교사, 학부모들도 혼란스러워 하는 대입 전형의 명칭도 쉽게 바꿨으면 한다. 공교육 살리기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는 지속돼야 한다.

“보육·교육비 문제 꼭 해결해주시길”



▲김윤지
(38·주부)
세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이다. 아이 키우기 너무 힘든 세상, 새 대통령이 좀 바뀌주기를. 정부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내세우지만 장바구니 물가, 학원비는 날로 오르는 현실, 너무 힘들다.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는 데 전혀 느낄 수가 없다. 여자맘은 여자가 가장 잘 알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 엄마들을 위한 정책, 특히 보육문제, 교육비 문제를 꼭 해결해주셨으면 좋겠다.

“취업준비생들을 배려하는 정책 개발”



▲김현석
(28·취업준비생)
취업준비생으로서 가장 서러운 것 중에 하나는 저희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다. 경기가 침체돼 취업이 어려워진 것인데, 죄인 시되는 분위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취업준비생들을 동정의 대상으로만 여기지 않아주길 바란다. 취업준비생을 패배자처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을 개선하고 나이 많은 취업준비생들을 배려하는 정책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광주광역시
www.gwangju.go.kr

2012
광주광역시

광주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2012년 47개 분야 수상 인센티브 193억원 확보

- 물가관리 우수사례발표대회 우수 우수상
- 지방물가인정관리 평가 최우수기관
- 지방공공요금 물가관리 최우수기관 (광역1위)
- 한국 장애인인권상(인권정책부문) 위원회상
- 2012 재난관리 실태점검 평가 우수기관
- 2012년 행정제도개선 우수기관 우수상
- 제2회 대한민국 경관대상 대상
- 대한민국 경제리더 글로벌경영부문 대상
- 2025 광주도시기본계획 최우수 기관 표창 최우수상
- 2011년 지역일자리 공시제 평가 우수상
- 2012국가브랜드 대상 수상
- 지역브랜드 커뮤니케이션 분야 최우수 대상
- 2012년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평가 최우수상

- 전국 민관협력 우수사례 공모대회 최우수상
- 심폐소생술 자발회복률 전국1위
- 화재 안전도(인구 1만명 당 인명피해율) 전국1위
- 2012 합동평가 지역특화 분야 우수상
- 2011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 추진평가 우수기관
- 지역복지 우수사례 선정 우수상
- 대한민국 건강랭킹 전국1위
- 민선5기 시도지사 공약이행평가 최우수상
- 2012년 16개 시도 장애인복지 수준평가 우수상
- 드림스타트 사업 우수기관 선정 우수상
- 2011 노인일자리사업 전국평가 최우수 기관 수상
-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실적 평가 최우수상 등 47개 분야 수상